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넘쳤던 만민의 2015년을 회고해 본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믿음이 성장할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향이 진하게 우리나라며 그 사랑의 깊이도 더욱 깊어진다.

온 영의 흐름을 타다

좋은 하나님께서는 올 한해도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므로 변화의 물결을 타게 하였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셨다.

우리가 체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 허리케인 호아킨 등 자연 재해에서 보호받고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등 크신 사랑으로 베푸신 권능의 역사.

만민뉴스

제718호 2015년 12월 2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5 성탄 점등식'이 지난 12월 18일 저녁 9시 50분,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 올해 성탄 트리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꽃들의 잔치'를 주제로 꾸며졌으며, 점등식 현장은 GCN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다.

우리를 변화시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무수한 변화의 열매로 대망의 2016년을 준비하다

2015년 한해 우리 교회와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영의 흐름 속에 힘차게 달려왔다. 특별히 송구영신예배 이후 전 성도 기도제목 네 가지 곧 영광(학 2:9), 열매(살전 5:23), 아름다운 성전(계 21:10-11), 재창조의 권능(창 1:3)을 붙들고 기도하며,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해였다.

올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안식년을 맞아 산상기도처에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전 세계와 교계, 성도들을 위해 공의를 대신 채워왔다. 만민의 성도들에게는 변화의 행함과 충성으로 각자가 채워야 할 최소한의 공의를 채우는 기회가 되었고, 결국 무수한 변화의 열매로 대망의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15년 설 만남, 부활절, 기관장 교육, 하계수련회, 교회 창립 기념주일, 성탄절 등 때를 좇아 산상에서 내려와 성도들이 온 영의 흐름을 타기에 족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었다.

연초 설 만남에서 이 목사는 “항상 기뻐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가난, 질병, 재앙과 상관없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하며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도들은 상·하반기 두 차례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불같이 기도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각종 절기와 헌신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이 간절해졌다.

또한 해외 27개국에서 참석한 '2015 만민 하계수련회' 시에는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이 치료되고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해졌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서도 영의 공간에서 불어오는 천상의 바람을 통해 시원하고 쾌적한 최상의 수련회를 치렀으며, 육신의 생각이 벗어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탔던 것이다.

이렇듯 목자의 공간 안에 거하는 만민의 성도들의 삶에는 올 한해에도 평안과 행복이 넘쳤다. 세계 곳곳에서는 자연 재해와 테러, 전쟁 등 재앙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았으며(관련 기사 3-4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축복이 넘쳐 십일조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일꾼들이 참석한 '2015 만민 기관장교육'을 통해 사랑과 공의가 조화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우치며 더욱 충만함을 받았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만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영(살전 5:23)의 마음을 사모하여 올 한해도 말씀 무장과 불같은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힘썼다.

이와 더불어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함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뜨겁게 침노하였다. 이러한 힘찬 믿음의 행군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도 쑥쑥 성장하여 연말에는 수많은 성도가 믿음의 반석(마 7:24)과 영(요 4:24), 온 영(살전 5:23)의 열매로 나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이러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밑바탕에는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10년 12월 25일 이후 성도들이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신속한 믿음 성장을 이루어 2014년 영의 평준화를 이루고 2015년 온 영의 흐름

이 조성되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 주며 생명 다한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 사랑에 힘입어 변화의 열매로 나온 성도들은 신뢰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2016년 본격적으로 펼쳐질 제3도약기의 주역으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재창조의 권능으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창대히 이뤄갈 것이다. 2015년 한해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한편, 오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2015-2016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 개인 기도제목을 위해 축복 기도를 받으며,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기도제목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엡 5:9),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딤후 2:4),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시 37:6), '끝이 없는 권능의 제단'(시 62:11)을 표현한 예능위원회 공연을 통해 대망의 2016년 만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마음에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은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기억력이 약해졌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하루 하루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며 가장 귀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한이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1) 참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로봇처럼 무조건 복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여 마음 중심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헛된 것을 구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죄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을 행하며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똑같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 해도 나침반을 갖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과 망망한 바다에서 갈 곳을 모르고 표류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삶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으면 어떤 연단이나 역경이 와도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며 매순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은혜

아무리 인간 경작의 섭리를 밝히 안다 해도 그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은 결국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수많은 사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형벌에 속합니다.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밤새 끌려 다니며 매 맞고 조롱당하고 온몸에 잔인하게 채찍질을 당해 선혈이 낭자하고 뼈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손가락 길이의 굵은 가시들이 머리를 파고들며,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힌 채로 타는 듯한 태양 아래 한나절을 매달려 있다가 결국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하지요.

로마서 5장 7~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인생들을 위해, 어둠에 물들어 살던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없이 혹독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 마음 깊이 새겨져 변함없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3) 마지막 때 참 목자를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혹은 들어도 깨우치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믿는다 하면서 세상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던 사람도 어느

순간 세상의 미혹을 받아 어둠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둠이 짙어가는 마지막 때에 정욕과 쾌락, 자기 유익을 좇는 세대에서 양 떼를 지키는 참된 목자가 너무나 절실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후반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 목자는 생명 다해 양을 돌보아야 합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시켜 주어야 하지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어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 줘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항상 경고해야 하지요. 맹수가 양을 물고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그 입에서 양을 건져 내듯이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도 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양 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게 해 주어야 하지요. 영혼들이 스스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을 때까지 생명 다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성도들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통해 그 말씀이 참임을 확신하고,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참 자녀를 얻고자 무수한 세월 동안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마지막 때 귀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 얼마나 넘치게 주셨는지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은혜와 사랑이 다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향이 진하게 우리나라 오며 그 사랑의 깊이도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곧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찬송시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6세 때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여윈 후, 방탕한 길로 빠져 온갖 죄를 짓다가 결국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매매하던 어느 날, 험한 폭풍을 만났지요.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철저히 회개한 후 목회자가 되어 일평생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였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게 살아온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80세가 넘는 나이에 도 그는 열정적으로 설교하면서 항상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온 영의 흐름 가운데 힘차게 달려온 2015년

한해 동안 변화와 생명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사랑과 은혜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끄시다**”

하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힘차게 온 영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은 물론, 안식년 가운데 전 세계 만민을 위해 기도하시며 공의를 채워 오신 목자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며 변화를 위한 행함과 불같은 기도에 힘써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과 소망이 더해졌고, 중심에서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행하니 그 향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셨다(사진 1, 2).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참석하는 글로벌 축제 '기관장 교육'과 '만민 하계수련회'에서는 생명의 말씀과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각자에게 나타난 사랑의 증거를 찾는 즐거움으로 가득하였다. 올해 하계수련회 중 가장 특별했던 것은 '천상의 바람'으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첫날 교육 후 이어진 은사집회에서는 각색 질병과 자폐증을 비롯한 많은 불치병이 치료되고, 걷지 못하던 이들이 일어나 걷고 뛰는 등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간증자들로 단을 가득 메웠다. 더욱이 해외에서 참석한 28명의 농아 중 27명의 귀가 열려 소리를 듣게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사진 3, 4).

이러한 은혜 가운데 10월 10일,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아 발간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100번째 저서 『하나님의 벼 아브라함』은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뢰의 행함, 그 순복하는 참된 신앙을 본받아 온 영의 흐름을 잘 탈 수 있게 하였다(사진 5).



“**아름다운 공연으로
믿음과 소망을 더하시다**”

올해에도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공연들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마음 깊이 전달하며, 천국 소망을 더해 주었다. 우리 교회 공연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들로 기획 구성되며, 세계 유일 찬양전문 닷시 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 반주단, 그리고 수준 높은 기량을 갖춘 예능팀 등 구성원 모두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전문 스태프들이 참여하여 분당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데,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부활절 기념 공연 '순교'는 아름다운 유화 작품과 같은 영상 배경

과 막을 이용한 회상 장면으로 감동을 더했다. 참혹한 십자가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상고하며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 등을 통해 사랑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사진 1).

교회 창립을 맞아 전야 '꽃들의 잔치'와 축하 공연 '만민의 사역'은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사진 2, 3).

성탄 전야 공연 '사랑'은 다양한 장르의 무용과 극이 어우러져 감동을 더하며 찬양과 연주, 대사가 라이브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사진 4).



이어서 4면

01 JANUARY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프로그램
2015.12.27~2016.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바라볼 것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 생명의 씨 4 공간과 차원 6-7 십자가의 도 3-7 창세기 강해 81-85 요한일서 강해 30-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을 미워하는 것 7 (이수진 목사) 나의 수고는? 2 (이미경 목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희선 목사) 생명수 6 (신동초 목사) MIS 강의 50 (정구영 목사) 성령의 9가지 열매 2 (김수정 목사) 라오디게아 교회 (김승신 전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5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47 내 마음의 찬양 24 창조와 과학 19 모두 드려요 39 즐거운 요리 20 옛날 옛적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믿음으로 걸어온 길 22 회상 (시즈)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 1-4 1차 영혼육 6-8 헛되고 헛되니 1-3 예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glish 3 뷰티풀 라이프 2 홍겨운 소리 4 플로리스트 9 	<p>GCN 채널 kt olleh tv 882번</p>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사랑을 보이시다

네पाल의 대지진과 미국 허리케인 호아킨에서 보호받은 기도의 위력



대지진에서 보호받은 네팔만민교회(상단 오른쪽)는 새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았다.

4월 25일, 강도 7.8의 대지진과 여진 속에서 네팔만민교회는 물론 당시 196개 지·협회교회(12월 현재 208개) 모두 보호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지난 11월 14일(토), 새성전 입당예배와 함께 창립 10주년을 맞은 성도들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재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영육 간에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미국 뉴욕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사진)의 요청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시점과 이후 소멸된 허리케인.

상주터널 폭발사고와 프랑스 테러에서 벗어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

10월 26일, 박노철 장로는 대구로 가던 중 점심을 일찍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 문경휴게소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곳에서 TV로 상주터널 폭발사고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사고차량은 자신과 함께 앞서거나 뒤서거나 했던 바로 그 대형트럭이었다. 평소처럼 상주터널을 지난 뒤 식사를 했다면 그도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외에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안성제 형제(초등 6)와 업무차 이동 중이던 윤창수 장로도 같은 사고의 위험에서 보호받았다.



박노철 장로



윤창수 장로

11월 13일 저녁, 프랑스 파리 강치연 선교사는 그날따라 일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였다. 그 뒤 그는 언론을 통해 매장 근처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 평소처럼 움직였다면 그 또한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을 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주관하셔서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안성제 형제



강치연 선교사

인도 첸나이 폭우와 홍수로 인명 피해 막은 목자의 공간

11월 9일부터 인도에 내린 비는 강한 태풍을 동반한 집중 폭우로 첸나이에서 70여 명의 사망자를 내며 수해 복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16~18 일에는 우리 교회 선교팀의 손수건 집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입국하는 날 폐쇄되었던 첸나이 공항이 재개되고 2개의 태풍이 소멸되었으며, 오던 비가 멈춰 좋은 날씨 속에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선교팀이 출국한 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2월 1일, 인도 역사상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첸나이만민교회 한정희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 그 뒤 2개의 강한 태풍은 순간에 이동 경로를 변경하여 첸나이를 벗어나 동서로 이동하였으며, 악화되면서 다음날 새벽 5시경 완전히 멈추었다. 타밀나두 주 내에서만 347명이 사망하였으나 첸나이만민교회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



기도를 받기 전(12월 1일)과 그 후의 기상도(12월 2일) 한정희 목사(사진)의 기도 요청으로 첸나이만민교회는 피해가 없었다.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올해에도 러시아, 핀란드, 이스라엘, 온두라스, 페루, 콜롬비아, 인도, 태국, 일본, 네팔,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각처에서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 희한한 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을 통해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받은 성도들이 암, 에이즈 등 갖가지 질병은 물론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농아들이 말하고 듣게 되며, 지팡이와 목발을 버리고 걷고 뛰는 등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6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안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평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제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